

존 박 어바인시 커미셔너, 시의원 출마



▲ 존 박 어바인시 재정위원회 커미셔너. 사진=존 박

존 박 어바인시 재정위원회 커미셔너가 오는 11월 8일 실시되는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박 커미셔너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바인시는 주민 수가 30만 명을 넘으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 했던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어바인시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다양한 요소들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시의원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시의원으로 당선되면 "미 전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인 어바인시의 공공 안전과 어바인시 주민의 삶의 질, 어바인시 균형 재정 유지에 힘쓸 것"이라

며 전했다.

박 커미셔너는 지난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시의회의 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지만 입성에는 실패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노린다. 올해 어바인시 시의원 선거에서는 2명의 시의원을 선출한다.

박 커미셔너는 미셸 박 스틸과 영 김 연방하원의원, 최석호 가수하원의원, 돈 와그너 OC수퍼바이저를 비롯해, 어바인 시의 앤서니 쿠오 부시장과 마이크 캐롤 시의원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박 커미셔너는 자신이 설립한 페이스북 기반 공화당원 모임 '그레이터 어바인 리퍼블리칸' 대표이며, 지난해 1월 OC공화당 중앙위원회 제1부의 장으로 선출됐다. 로터리 클럽 회원, 비영리단체 아태계연합(AAPI United) 자문위원으로서 지역 사회 봉사도 하고 있다.

어바인에 22년 넘게 거주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캠페인 웹사이트(IrvineJohnPar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항공, 올해 말 만료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스카이패스 회원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워진 것을 감안하여, 2022년말 처음 만료 예정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2023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되어 올해 만료 예정이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되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된다. 또한 2022년말 기준 이미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는 2010년과 2011년 적립 마일리지는 추가로 6개월을 더 연장해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마일리지는 6월 중 순차적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는 보너스 항공

권 외에도 ●공항 라운지 ●초과 수하물 ●호텔 숙박 ●여행 상품 ●KAL 스토어 상품(로고상품) 등의 서비스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상품을 다양화하고 있다. KAL 스토어를 통해 소액 마일리지로도 구매가 가능한 레드백, 사무용품 등의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마트 할인 등과 같이 실생활과 밀접한 곳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마일리지 제휴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고객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리조나주 메사시 '한복의 날' 선포



▲ 애리조나주 메사시의 한복의 날 선언문. 사진=AAVC

미국에서 '한복의 날'을 제정한 네 번째 도시가 탄생했다.

지난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미차세대협의회(AAYC·대표 브라이언 전)는 전날 애리조나주 메사시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애리조나의 주도 피닉스 인근에 위치한 메사시는 인구 50만여 명으로 인구 기준으로 주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다.

존 가일스 메사 시장은 선언문에서 한복의 날은 이 지역 한인 사회의 영향력과 한미우호 관계에 대한 존중의 표시라고 밝혔다.

한복의 날 선언문에는 한복의 기원이 단군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의 전통문화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한복의 날로 10월 21일을 선택한 것도 한국에서 시행되는 한복의 날과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점도 명시됐다.

메사시가 한복의 날을 기념기로 한 것은 지난해부터 미 동부를 중심으로 한복의 날을 선포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을 지켜본 애리조나 한인 사회의 노력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에선 뉴저지의 테너플라이와 클로스터, 콜로라도의 오로라시가 한복의 날을 선포했고, 주 차원에서는 뉴저지주가 50개 주 중에서 최초로 한복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AAVC는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에서도 한복의 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 지난해 10월21일 뉴저지 테너플라이에서 처음 열린 한복의 날 기념행사. 사진=AAVC

Implant \$1,500	잇몸치료 \$600	Exam X-ray Cleaning \$60
Crown \$700	틀니 \$2,000	각종 보험 메디칼 환영

KMC Dental Group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Dr. Soung Hoon Cho
DDS

Irvine Tel. (949) 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 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 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
---	---	---